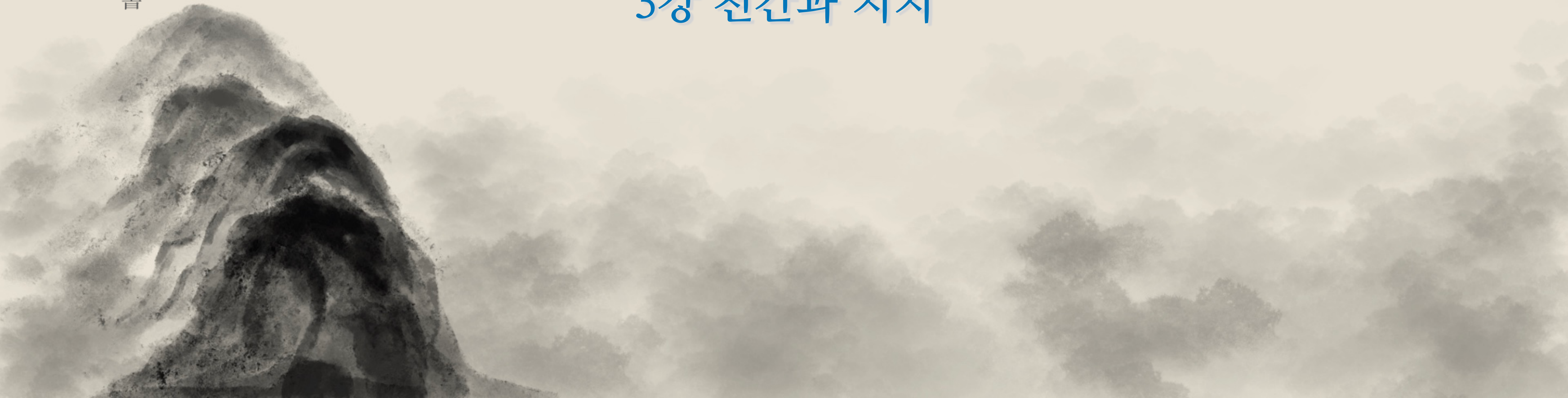


명리 고전 하이라이트 강독 I

3강 천간과 지지

李虛中命書
子平粹言



삼명통회 권2 論天干陰陽生死

十干五陽五陰，陽者為剛，陰者為柔.

易曰，分陰分陽，迭用柔剛是也. 其生死之分，如母生子，子成而母老死，理之自然.

賦曰，陽生陰死，陽死陰生，循環逆順，變化見矣是也.

십간의 오양(五陽)과 오음(五陰)에 양은 강(剛)이고 음은 유(柔)이라고 했다.

역(易)에 이르길, 음으로 분화하고 양으로 분화하여 강과 유를 번갈아 쓴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음양의 생사의 구분에 있어서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성장하고

어미는 늙어서 죽는 것과 같은 것이 이치의 자연이다.

부(賦)에 이르길, 양생(陽生)하면 음사(陰死)하고, 양사(陽死)하면 음생(陰生)하여

역(逆)과 순(順)으로 순환하니, 변화가 나타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했다.

자평진전 二. 論陰陽生剋

甲者 陽木也 木之生氣也

乙者 陰木也 木之形質也

甲은 양목이며 木의 생기이고

乙은 음목이며 木의 형질이다.

庚者 陽金也 秋天肅殺之氣也

辛者 陰金也 人間五金之質也

庚은 양금이며 가을 하늘에 뿌려지는 숙살의 기운이고

辛은 음금이며 인간세상에 존재하는 오행 중 金의 질이다.

木之生氣 寄於木而行於天 故逢秋天肅殺之氣
則銷剋殆盡 而金鐵刀斧 反不能傷

木의 생기는 木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운행하는 기운이다.
그러므로 가을 하늘에서 뿌려지는 숙살의 기운을 만나면
상극하는 위험은 마침내 사라지게 되지만
그러나 쇠로 만든 칼과 도끼는 오히려 상하게 하지 못한다.

3강 천간과 지지

木之形質 遇金鐵刀斧 則斬伐無餘
而肅殺之氣 只外掃落葉 而根底愈固

木의 형질은 쇠로 만든 칼과 도끼를 만나면
곧 남김없이 베어지지만
그러나 속살의 기운을 만나면 단지 겉으로는 낙엽이나 떨어질 뿐이고
땅 속의 뿌리는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게 된다.

3강 천간과 지지

적천수 通神論

삼명통회 권2 論天干陰陽生死

甲

火熾乘龍

사주에 화기가 많을 때는 지지에 용(辰)이 필요하고

水蕩驥虎

사주에 수기가 넘칠 때는 지지에 호랑이(寅)가 필요하다

3강 천간과 지지

甲木乃十干之首，主宰四時，生育萬物，在天為雷為龍，在地為梁為棟，謂之陽木，其祿到寅，寅為離土之木，其根已斷，其枝已絕，謂之死木，死木者剛木也，須仗斧斤斲削，方成其器。

甲木은 십간의 머리이고 사시(四時)를 주재하며 만물을 생육한다.

하늘에서는 우레와 용이 되고 땅에서는 동량(棟梁)이 되니, 양목(陽木)이라 한다.

甲木의 녹은 寅이고, 寅은 토를 떠난 木이라서 그 뿌리와 가지가 이미 단절되어 사목(死木)이라 하는데, 사목(死木)은 강한 木이니, 도끼로 깎이고 다듬어져야만 비로소 기물을 이룬다.

3강 천간과 지지

長生於亥，亥為河潭池沼之水，名曰死水，故死木放死水中，雖浸年久，不能朽壞。

譬如杉椿之木，在於水中，則能堅固。若離水至岸，而遇癸水，癸水者活水也，
為天地間雨露，日曬雨淋，乾濕不調，遂成枯朽，則能生火，火旺而木必焚矣，故有灰飛煙滅之患。

장생은亥이고亥는하담지소(河潭池沼)의水이며명명하기를사수(死水)라한다.

그러므로사목(死木)을사수(死水)에풀어놓으면오랫동안침식(浸蝕)되어도썩어부서질수없다.

비유하면삼춘(杉椿)나무의木이물속에있으면견고해지는것과같다.

만약水를떠나언덕에이르러癸水를만나면癸水는활수(活水)이고천지간의비와이슬이니,

햇볕에쬐고비에젖으면건습(乾濕)이조절되지못해서마침내마르고썩는다.

이러하면능히火를생하니,火가왕하면木은반드시불타버리기때문에재가날리고연기가꺼지는우환이있다.

3강 천간과 지지

且午屬離火，火賴木生，木為火母，火為木子，子旺母衰，焉有不終之理。故甲木死於午。經云，木不南奔，正謂此也。又曰，甲乃陽剛蠢木，原無根葉枝葉，若成器得用，必藉乎金，密藏不壞。必賴乎水火初得配，遂成文明之象，使火過多，兼遇南方，化成灰炭，反致其害矣。蓋甲木不以春秋而為榮悴，觸物變化，亦無定形，須看火金水何如，又看化合何如，不可執一論。

또 午는 리화(離火)에 속하고 火는 木의 생에 의뢰하며, 木은 火의 어머니이고 火는 木의 자식이니, 자식이 왕하고 어머니가 쇠하면 어찌 다하지 않는 이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甲木은 午에서 사(死)한다. 경(經)에 이르길, 木은 남방으로 달리면 안 된다고 했으니, 바로 이것을 말함이다. 또 이르길, 甲은 양강(陽剛)하고 꿈틀거리는 木이며, 원래 뿌리, 잎, 가지, 초근(草根)이 없으니, 만약 기물을 이루고 쓰임을 얻으려면 반드시 金에 의지해서 밀장(密藏)하고 부서지지 않아야 한다. 반드시 水에 의지해서 火가 처음에 水와 배합되어야 마침내 문명의 상을 이룰 수 있다. 火가 과다(過多)하고 동시에 남방 火를 만나면 재와 숯으로 변하니, 도리어 해로움을 이룬다. 대개 甲木은 봄가을로 무성하고 시드는 것이 아니고 물(物)에 접촉하여 변화하는 것이니, 또한 일정한 형(形)이 없다. 반드시 火金水가 어떠한가를 살펴야 하고, 다시 화합(化合)이 어떠한가를 살펴야 하니, 한 가지 이론으로 집착해서는 안 된다.

乙

剗羊解牛

월일지에 미토나 축토를 만나도 마음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懷丁抱丙

병화나 정화가 천간에 떠 있으면

跨鳳乘猴

지지의 유금이나 신금을 감당할 수 있다

3강 천간과 지지

虛濕之地

지지에 겨울(水旺節)의 습기가 과하면

騎馬亦憂

지지에 오화가 있어도 추위가 걱정되며

藤蘿繫甲

천간에 갑목이 있어 이를 의지할 수 있으면

可春可秋

넝쿨이 소나무를 감고 엉켜오르듯 봄도 좋고 가을도 괜찮다

3강 천간과 지지

乙木 繼甲之後 發育萬物 生生不已 在天為風 在地為樹 謂之陰木
其祿到卯 卯為樹木 根深枝茂 謂之活木.

活木者 柔木也 懼陽金斫伐為患 畏秋至木落凋零 欲潤土而培其根 利活水而滋其枝葉.

活水者 癸水也 即天之雨露 地之泉源. 潤土者 己土也 如耕耨之土 成稼穡之功.

己祿在午 午乃六陽消盡 一陰復生 故稻花開於午時

乙木生於午地 十月建亥 亥乃純陰司令 壬祿到亥當權 死水泛濫 土薄根虛 有失培養 故乙木死於亥.

乙木은 甲의 뒤를 계승하여 만물을 발육하며 낳고 낳아 그치지 않는다. 하늘에서는 바람이 되고 땅에서는 나무이니, 음목이라 한다. 녹은卯이고卯는 수목(樹木)이며 뿌리는 깊고 가지는 무성하니, 활목(活木)이라 한다. 활목은 유목(柔木)인데, 두려운 것은 양금(陽金)이 작별(斫伐)하여 우환이 되는 것이고, 꺼리는 것은 가을에 木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이며, 바라는 것은 윤택한 토가 뿌리를 배양해주는 것이며, 이로운 것은 활수(活水)로 가지와 잎을 자생해 주는 것이다. 활수(活水)는 癸水이니, 곧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고, 땅에서 샘의 근원이다. 윤토(潤土)는 己土이니, 마치 경작하는 토와 같아서 가색(稼穡)의 공을 이룬다. 己의 녹은 午이고 午는 巳 육양(六陽)이 소진하고서 일음(一陰)이 생으로 회복한다. 때문에 벼꽃이 午時에 피어나고, 乙木이 午 지지에서 생한다. 十月의 월령은 亥이고 亥는 순음(純陰)이 사령하며, 壬의 녹이 亥에 이르러 당권(當權)하니, 사수(死水)가 범람하여 토는 박(薄)해지고 뿌리는 허(虛)해져 배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乙木이 亥에서 사(死)한다.

3강 천간과 지지

經云, 水泛木浮, 正此謂也. 又曰, 乙乃枝葉繁華之木, 大喜陽和煦照則發榮, 不利陰冷慘刻則耗枯, 水多則傾頹其根菱, 金旺則戕剝其生意, 如身衰火多, 兼行南方而禍不淺, 西行土重助煞傷身, 不克從者, 為禍尤深. 蓋活木連根之木也, 豈棟梁之比哉.

경(經)에 이르길, 水가 범람하면 木이 뜰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함이다. 또 이르길, 乙은 지엽(枝葉)이 번성한 木이고, 크게 좋아하는 것은 양(陽)의 온화(溫和)한 기운으로 햇빛을 비춰주어서 발영(發榮)하는 것이며, 이롭지 못한 것은 음(陰)의 한랭한 기운으로 잔혹하게 하여서 시들고 마르는 것이며, 水가 많으면 뿌리가 기울어 무너지며, 金이 왕성하면 생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린다. 만일 신약하고 火가 많은데, 동시에 남방 운으로 행하면 화(禍)가 가볍지 않고, 서방으로 행하여 土가 중첩하면 살을 도아 일주를 상해하니, 종(從)할 수 없는 경우는 화(禍)가 더욱 심하다 대개 활목(活木)은 뿌리를 내리는 木이니, 어찌 동량(棟梁)의 木에 비견하겠는가.

丙

能煅庚金

경금을 보더라도 능히 이를 불려 녹여버릴 수 있지만

逢辛反怯

신금을 만나는 것을 오히려 겁을 낸다.

土衆成慈

토가 많으면 자애로움을 이루고

水猖顯節

수가 미쳐 날뛰어도 절개를 지킨다

3강 천간과 지지

丙火，麗乎中天，普照六合，在天為日為電，在地為爐為冶，謂之陽火，其祿在巳，巳為爐冶之火，謂之死火。死火者，剛火也，喜死木發生其焰，惡金土掩息其光。死木者，甲木也，甲祿在寅，寅乃陽木之垣，木盛火生，隱於木石之間，非人用之，不能生發，故五陽皆出乎自然，而為先天，五陰皆係乎人事，而為後天，丙火生於寅，其理甚明，如太陽之火，自東而升，至西而沒，且酉屬兌，兌為澤，己土生金，金氣盛，掩息丙火之光，不能顯輝，豈無晦乎，故丙火生於寅而死於酉，

丙火는 중천(中天)에 걸려 상하와 사방을 두루 비춘다. 하늘에서는 태양과 번개이고, 땅에서는 화로(火爐)와 제련(製鍊)이 되니, 양화(陽火)라고 한다. 丙火의 녹은 巳이고 巳는 화로에서 제련하는 火이니, 사화(死火)라고 한다. 사화(死火)는 강화(剛火)이고, 좋아하는 것은 사목(死木)이 불꽃을 발생해주는 것이며, 싫어하는 것은 金土가 광채를 가리어 밝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목(死木)은 甲木이고 甲의 녹은 寅이며 寅은 양목(陽木)의 원(垣:木垣,월령)이라서 木이 성(盛)하면 火가 발생하는데, 火가 목석(木石)의 사이에 감추어질 때는 사람이 쓰지 않으면 발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양(五陽)은 모두 자연으로부터 나와서 선천(先天)이라 하며, 오음(五陰)은 모두 인사(人事)와 관련되어서 후천(後天)이라 한다. 丙火가 寅에서 생한 것은 그 이치가 아주 명백하며, 마치 태양의 火가 동쪽으로부터 떠올라 서쪽으로 지는 것과 같다. 또 酉는 태(兌)에 속하고 태(兌)는 택(澤)인데, 己土가 金을 생하여 金의 기(氣)가 왕성해지면 丙火의 광채를 가리어 드러나 빛날 수 없으니, 어찌 어두워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丙火는 寅에서 생하여 酉에서 사(死)한다.

3강 천간과 지지

經云, 火無西向, 正此謂也. 又曰, 丙火太陽之象, 上下化光, 無所不照, 然不以浮水之木為母, 不能生有焰之火, 不以濕水之土為子, 陽火所不產也. 縱遇江湖死水, 不合不衝, 則波濤弗致衝激, 焉能為剋火之害. 其所忌者, 乃繁華之木, 涸水不能生火, 而反能晦火之光, 如五星太陽以木炁為難之義.

경(經)에 이르길, 火가 서방으로 향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함이다. 또 이르길, 丙火는 태양의 상(象)이고, 上下 만물을 덕화(德化)로 빛나고 성대하게 하여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물에 뜬 木(浮木)으로 어미를 삼지 않으면 불꽃 있는 火를 생할 수 없고, 물에 젖은 土(濕土)로 자식을 삼지 않으면 양화(陽火)를 생산하지 못한다. 설령 강호(江湖)의 死 사수(死水)를 만나더라도 부합되지 않거나 충 하지 못해서 곧 파도에 충격(衝激)에 이름이 없으니, 어찌 火를 극하는 해로움이 될 수 있겠는가? 꺼리는 것은 번성(繁華)한 乙木이니, 물에 젖은 乙木은 火를 생할 수 없고, 도리어 능히 火의 광채를 어둡게 하니, 마치 오성(五星)과 태양(太陽)의 빛이 목의 기운으로 어렵게 되는 뜻과 같다.

丁

抱乙而孝

을목 어머니를 품에 안아 신금으로부터 보호하여 효도하고

合壬而忠

군주인 임수와 합하여 무토로부터 지켜내어 충성한다

如有嫡母

천간이나 지지에 어머니인 목이 있어 함께 한다면

可秋可冬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도 걱정할 것 하나 없다.

3강 천간과 지지

丁火繼丙之後，為萬物之精，文明之象. 在天為列星，在地為燈火，謂之陰火. 其祿到午，乃六陰之首，內有乙木，能生丁火，乙為活木，丁為活火，活火者柔火也. 丁喜乙木而生，乃陰生陰也，如世人用菜油麻油為燈燭之義，夫油乃乙木之脂膏也.

丁火는 丙의 뒤를 계승하고 만물의 정(精)이 되어 문명의 상(象)이다. 하늘에 있어서 열성(列星)이고 땅에 있어서는 등화(燈火)가 되니, 음화(陰火)라 한다. 녹은 午이고 곧 육음(六陰)의 머리이니, 안에 乙木이 있어서 능히 丁火를 생하며, 乙은 활목(活木)이고 丁은 활화(活火)이니, 활화(活火)는 유화(者柔火)이다. 丁은 乙木이 생하는 것을 반기니, 바로 음이 음을 생하는 것인데, 마치 세상 사람들이 채유(菜油)와 마유(麻油)를 사용해 등촉(燈燭)을 밝히는 뜻이며, 기름은 乙木의 기름(脂膏)이다.

3강 천간과 지지

至於酉時，四陰司權，燈火則能輝煌，列星則能燦爛，故丁生於酉，至於寅地，三陽當合，陽火而生，陰火而退，如日東升，列星隱曜，燈雖有焰，不顯其光，故丁生於酉，而死於寅也。

酉 시령에 이르러 4음(四陰)이 권한을 맡아서 하니, 등화(燈火)는 휘황(輝煌)하고 열성(列星)이 찬란(燦爛)하기 때문에 丁은 酉에서 생하며, 寅에 이르러서는 삼양(三陽)이 삼음(三陰)과 합당(當合: 地天泰: 삼음, 삼양이 합함)하여 양화(陽火)는 생하고 음화(陰火)는 물러가니, 마치 태양이 동에서 떠오르면 열성(列星)이 별빛을 감추는 것과 같다. 등불이 불꽃이 있더라도 그 빛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丁은 酉에서 생하고, 寅에서 사한다.

3강 천간과 지지

經云, 火明則滅, 正謂此也. 又曰, 丁火陰柔, 要得時遇局, 方能輝光燦爛, 雖頑鈍之金, 亦在其所鍛煉. 若失時喪局, 即韜光晦跡而煙無存, 雖微眇之金, 亦不能制, 然木燥雖少, 猶足以發火之機, 木濕雖多, 亦難以致火之明, 要看其中強弱, 不可泥於一偏.

경(經)에 이르길, 火가 밝으면 소멸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함이다. 또 이르길, 丁火는 음유(陰柔)하여 득시(得時)하고 국(局)을 만나야 비로소 능히 휘황찬란(輝光燦爛)해지니, 비록 완고하고 둔한 金이라도 단련할 수 있다. 만약 실시(失時)하고 국(局)을 상실(喪失)하면 빛을 감추고 자취를 숨겨 연기조차도 존재하지 않으니, 비록 경미(微眇)한 金이라도 능히 제어하지 못한다. 그러나 木이 건조하면 적더라도 오히려 火의 기틀을 충분히 발할 수 있으나, 木이 습하면 많더라도 또한 火의 광명을 이루기 어렵다고 했다. 그 가운데의 강약(強弱)을 살펴야 하니, 한 편으로 집착해서는 안 된다.

戊

水潤物生

수가 있어 촉촉이 적셔주면 만물이 소생하니

火燥物病

화가 강해 너무 메마르면 만물이 병이 들고

若在艮坤

일지나 월지에 간곤 즉 인신을 깔고 있으면

怕冲宜靜

충을 만날까 두려우니 안정되어야 마땅하다.

3강 천간과 지지

戊土，洪濛未判，抱一守中，天地既分，厚載萬物，聚於中央，散於四維，在天為霧，在地為山，謂之「陽土。」其祿在巳，巳為爐冶之火，鍛煉成器，叩之有聲，其性剛猛，難以觸犯，喜陽火相生，畏陰金盜氣。陽火者，丙火也。丙生於寅，寅屬艮，艮為山，山為剛土，即戊土也，賴丙火而生焉。

戊土는 천지가 혼돈하여 판별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를 품어 가운데를 지키고, 천지가 이미 분간(分揀)되었을 때는 만물을 두터이 실어 중앙에 모였다가 4 간방(間方, 四維)으로 산재(散在)하였다. 하늘에서는 무(霧:안개)가 되고 땅에서는 산이 되니, 양토(陽土)라고 한다. 녹은 巳에 있고 巳는 화로 속에 제련하는 火가 되며, 단련하면 기물을 이루고 두들기면 소리가 난다. 그 성질은 강하고 사나워서 침범하기 어렵고, 양화(陽火)가 상생해 주기를 좋아하고 음금(陰金)이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양화(陽火)는 丙火이고 丙은 寅에서 생하고 寅은 간(艮)에 속한다. 간(艮)은 산이고 산은 강토(剛土)가 되니, 곧 戊土이고 丙火에 의뢰하여 생한다.

3강 천간과 지지

經云, 土虛則崩, 正此謂也. 又曰: 戊土深厚, 其象如城牆, 要生季月, 更求支下通根, 方能振河海而不泄. 若上下帶合, 則其形堅固, 無罅漏之虞. 身乘水木虛弱, 則其勢傾危, 而有崩頽之患. 如土失時, 大忌多金漏洩. 如城牆既就, 不可加木疏通, 喜行東南, 若原旺有印, 再行此地, 則火化生身, 反為過中之禍矣.

경(經)에 이르길, 토가 허(虛)하면 붕괴된다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두고서 말함이다. 또 이르길, 戊土는 깊고 두터워서 그 상(象)이 성벽(城牆)과 같아 계절(季月)에 생하길 바라고, 다시 지지에서 통근하고자 하니, 비로소 능히 하해(河海)를 거두어 들이고 누설하지 않는다. 만약 상하(上下)로 부합함이 있으면 그 형(形)이 견고하여 결실(缺失)되는 우려가 없다. 신(身)이 水木에 올라타서 허약하면 세력이 기울고 위태로워져서 붕괴되는 우환이 있다. 만일 토가 실시(失時)하면 많은 金이 누설하는 것을 크게 꺼린다. 성벽으로 이미 나아갔으면 木의 소토(疏通:疎土)를 더해서는 안 되고 동남으로 행하길 반기는데, 만약 원국이 토가 왕하고 인수가 있을 경우, 다시 이러한 지지로 행하면 火가 신(身)을 화생(化生)하여 도리어 과중(過中)한 화(禍)가 된다.

己

不愁木盛

자신을 극하는 목이 왕성해도 걱정하지 않고

不畏水狂

수가 미쳐 날뛰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火少火晦

화가 적으면 그 불빛은 어두워 음습한 땅을 밝히기 힘들고

金多金光

금이 많으면 그 금은 습기를 얻어 더욱 빛을 내게 된다.

3강 천간과 지지

己土，繼戊之後，乃天之元氣，地之真土。清氣上升，沖和天地，濁氣下降，聚生萬物，謂之陰土。天地人三才，皆不可缺此土，如乾坤中一媒妁，陰陽失此，豈能配偶，故於四行無不在，於四時則寄旺焉，乃真土也。喜丁火而生，畏陽火而煉。其祿到午，午中丁火能生己土，被乙木盜其栽培之氣。

己土는 戊의 뒤를 계승하니, 바로 하늘의 원기(元氣)이고 땅의 진토(真土)이다. 맑은 기운은 위로 올라가 천지와 조화되고 탁한 기운은 아래로 내려와 모여 만물을 생하니, 음토(陰土)라 한다.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는 모두 이 토가 결여 되서는 안 되는데, 마치 건곤(乾坤) 사이에 하나로 매개한 것과 같으니, 음양이 이것을 상실하면 어찌 짝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행(四行)에 있지 않음이 없고 사시(四時)에는 사행(四行)에 기탁하여 왕하니, 곧 진토(真土)이다. 丁火가 생하여 주길 좋아하고 양화(陽火)가 달구는 것을 두려워한다. 녹은 午에 있고 午中 丁火는 능히 己土를 생하며 乙木에게 그 재배(栽培)하는 기운을 빼앗긴다.

3강 천간과 지지

至於酉地, 丁火而生, 丁火既生, 己土亦能生也. 至寅用事, 木火司權, 鍛煉己土, 遂成磁石, 反失中和之氣, 豈有不損之理, 故己土生於酉, 而死於寅, 經云, 火燥土裂, 正此謂也.

酉 지지에 이르러 丁火가 생하고 丁火가 이미 생하면 己土 또한 능히 발생한다. 寅의 용사(用事)에 이르러선 木火가 권한을 맡아서 하고 己土를 단련하면 마침내 자석(磁石)을 이루어 도리어 중화의 기운을 상실하니, 어찌 결손하지 않는 이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己土는 酉에서 생하고 寅에서 사(死)하니, 경(經)에 이르길, 火가 조열하면 土가 갈라진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이르는 것이다.

3강 천간과 지지

又曰, 己土廣厚, 其象如田疇, 不貴多合生扶, 惟喜刑沖有用, 此固生物之體. 苟失令淺薄, 及天時不利, 不但難施磁基之力, 亦不能埋劍戟之金. 倘再兼行金水旺處, 則身愈弱, 尤為不利, 如逢火土生成, 則稼穡有生生之妙矣.

또 이르길, 己土는 넓고 두터우니, 그 상(象)이 밭두둑과 같아서 합하고 생부(生扶)함이 많으면 귀하지 못하며, 오직 형충의 소용이 있음을 반기니, 이는 진실로 만물을 생하는 체(體)이기 때문이다. 만일 실령(失令)하여 천박(淺薄)하고 천시(天時)에 불리하면 호미질 하는 힘을 쓰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검극(劍戟)의 金을 묻을(배양) 수 없다. 만약 다시 金水의 왕한 곳으로 행하면 신(身)이 더욱 약해지고 더욱 불리하나, 火土의 생성(生成)을 만나면 가색(稼穡), 즉 심고 거둬에 낱고 낱는 기묘함이 있다.

庚

得水而清

수를 얻으면 살기를 흘려 보내 맑아지고

得火而銳

화를 얻으면 몸을 달궈 날카롭게 변화한다.

土潤則生

촉촉한 토를 보게 되면 도움을 받아 생기를 얻고

土乾即脆

메마른 토를 만나봐야 도움이 없어 약해진다.

3강 천간과 지지

庚金掌天地肅殺之權，主人間兵革之變，在天則為風霜，在地則為金鐵，謂之陽金，其祿到申，申乃剛金，喜戊土而生，畏癸水而溺，長生於巳，巳中戊土能生庚金，乃陽生陽也。巳為爐冶之火，鍛煉庚金，遂成鐘鼎之器，叩之有聲，若遇水土沉埋，則無聲也，所謂金實無聲。

庚金은 천지 숙살(肅殺)의 권한을 관장하고 인간의 병혁(兵革)의 변동을 주관하며, 하늘에서는 풍상(風霜)이 되고 땅에서는 금철(金鐵)이 되니, 양금(陽金)이라 한다. 녹은 申에 이르고 申은 강금(剛金)이며 戊土가 생해주길 반기며 癸水가 침닉(沈溺: 물에 빠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巳에서 장생하고 巳中 戊土는 능히 庚金을 생하니, 곧 양이 양을 생하는 것이다. 巳는 화로에서 제련하는 火이니, 庚金을 단련하여 마침내 종정(鐘鼎)의 기물을 이루며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데, 만약 水土가 매장하면 소리가 없어서 이른바 金이 실(實)하면 소리가 없다고 한 것이다.

3강 천간과 지지

至於子地水旺之鄉，金寒水冷，子旺母衰，亦遭沉溺之患，豈能復生，故庚金生於巳而死於子。
經云，金沉水底，正謂此也。

子에 이르면 水가 왕한 곳이고 金水가 한랭하며 자식은 왕하고 어머니는 쇠하여, 또한 물에 빠지는
우환을 만나니, 어찌 생을 회복하겠는가? 그러므로 庚金은 巳에서 생하고 子에서 사(死)하니,
경(經)에 이르길, 金이 水 속에 빠진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3강 천간과 지지

又曰, 庚金頑鈍, 得火制而成器. 成器之金, 遇火鄉而反壞, 夏生無根, 又行東南之地, 則鎔化不已, 而終無有成. 秋生無火, 更行西北之鄉, 則澄清淬礪, 而光芒自如. 若沉於水底, 則終無出用之期, 金反受傷於水. 至若用薄鐵而伐茂林, 非惟不能折木, 而反為木所傷. 設使土重藏金, 而無刑沖剋破, 則金終埋沒, 亦無望其有用也.

또 이르길, 庚金은 완고하고 둔하여 火의 제어를 얻고서야 기물을 이루지만 기물을 이룬 金은 화향(火鄉)을 만나면 도리어 부서진다. 여름에 생하고 무근(無根)인데, 다시 동남의 지지로 행하면 열에 녹는 것이 그치지 않아 끝내 이루는 것이 없다. 가을에 생하고 火가 없는데, 다시 서북의 자리로 행하면 맑고 깨끗하게 담금질하고 연마되어서 광채가 나타난다. 만약 물속에 가라앉으면 끝내 소용을 기약하지 못하고, 도리어 水에게 손상을 받는다. 약한 쇠를 사용해 무성한 나무를 벌목할 때에 이르면 능히 木을 절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木에게 손상을 당한다. 설사 土가 중첩하여 金을 암장하고 있더라도 형충과 파극이 없다면 金은 끝내 매몰되니, 또한 그 소용을 바랄 수 없다.

辛

畏土之疊

토가 쌓여 토 속에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樂水之盈

수가 가득차 넘쳐 흘러 그 속에 잠기는 것을 좋아한다

熱卽喜母

여름철 더위에는 어머니인 기토의 생해움을 기뻐하고

寒卽喜丁

겨울철 추위에는 따스한 정화의 보살핌을 기뻐한다

3강 천간과 지지

辛金，繼庚之後，為五金之首，八石之元，在天為月，月乃太陰之精. 在地為金，金乃山石之礦，謂之陰金. 其祿到酉，酉中己土能生辛金，乃陰生陰也，謂之柔金，為太陰之精. 至於中秋，金水相停，會合含光，圓融皎潔，邵子有云，八月十五翫蟾光是也.

辛金은 庚의 뒤를 계승하고 오금(五金)의 머리이자 팔석(八石)의 으뜸이 된다. 하늘에서는 月이 되고 月은 곧 태음의 정(精)이며, 땅에서는 金이 되고 金은 산석(山石)의 광물이니, 음금(陰金)이라 한다. 녹은 酉에 이르러 酉中 己土는 능히 辛金을 생할 수 있어서 곧 음이 음을 생하는 것이니, 일컬어 유금(柔金)이라 하고 태음의 정(精)이 된다. 중추(中秋)에 이르면 金水가 균형을 이뤄 회합하여 빛을 머금어 원만(圓融)하고 교결(皎潔: 밝고 깨끗)하니, 소자(邵子: 소강절)가 이르길, 8월 15일에는 달빛을 완상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3강 천간과 지지

長生於子，子乃坎水之垣，坎中一陽屬金，外有二陰屬土，土能生金，子隱母胎，未顯其體，
得子水蕩漾，淘去浮砂，方能出色，此乃水濟金輝，色光明瑩。

子에서 장생하고子是 감수(坎水)의 월령이다. 감중(坎中)의 일양(一陽)은 金에 속하고 감중련(坎中連) 팔괘의 바깥 이음(二陰)은 土에 속하며, 土는 능히 金을 생하여 어머니가 자식을 배에 품고 자식이 어머니의 태(胎)속에 있어서 그 체(體)가 드러나지 않으며, 子水의 넘실거림을 얻어 뜬 모래를 씻어서 제거하니, 바야흐로 빛을 발할 수 있는데, 이는 水가 金의 광채를 구제하여 광색이 찬란히 빛난 것이다.

3강 천간과 지지

至於巳地，巳為爐冶之火，將辛金鍛成死器，亦被巳中戊土埋沒其形，不能變化，豈得復生，故辛金生於子而死於巳也。經云，土重金埋，正謂此也。

巳의 지지에 이르면巳는 화로에서 제련하는 火이고, 辛金이 火에 불려지면 사기(死器)를 이루며, 또한巳中 戊土에게 그 형(形)을 매몰되어 변화할 수 없으니, 어찌 생을 회복하겠는가? 때문에 辛金은 子에서 생하고巳에서 사(死)하는 것이니, 경(經)에 이르길, 土가 중첩하면 金이 매몰된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함이다.

3강 천간과 지지

又曰, 辛金濕潤, 非頑鈍堅剛之物, 使遇火炎鍛煉, 性質反傷, 安能成其美用, 只宜水土資扶, 優柔浹洽, 以潤其體, 原火太繁, 喜行西北, 使去火而存金, 如金太寒, 亦要丙丁使和金而去冷. 若坐祿通根, 即身旺之地, 縱加厚土, 亦不能汨沒, 所以非 陽金比也。

또 이르길, 辛金은 습윤(젓어서 윤택)하여, 완둔(완고하고 둔함)하고 견강(견고하고 강함)한 물건이 아니니, 화염의 단련을 만나면 성질이 도리어 손상되는데, 어떻게 좋은 소용을 이루겠는가? 오직 水土의 도움을 만나야만 우아하고 조화를 이루어 그 체를 윤택하게 한다. 원국에 火가 너무 번성하면 서북으로 행하여 火를 제거해서 金을 보존하길 기뻐한다. 만일 金이 너무 추우면 또한 丙丁이 金을 온화(溫和)하게 해서 한랭함을 제거해야 한다. 만약 녹에 앉아서 통근하면 신왕한 지지이니, 설령 두터운 토가 침범하더라도 또한 매몰할 수 없으니, 이 때문에 양금(陽金)에 비할 바가 아니다.

壬

能洩金氣

강하다는 금의 기운을 능히 흘려 보낼 수 있고

通根透癸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천간에 계수가 투출하면

冲天奔地

그 기세가 하늘을 비우고 땅을 내달릴만큼 강력하다.

3강 천간과 지지

壬水，喜陽土而為堤岸之助，畏陰木而為盜氣之憂，在天為雲，在地為澤，謂之陽水，其祿在亥，亥為池沼，存留之水，謂之死水，死水者，剛水也，賴庚金而生，庚祿到申，能生壬水，乃五行轉養之氣.

壬水는 양토(陽土)가 제방의 도움이 되기를 반기고 음목(陰木)이 기운을 빼앗아가서 우환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늘에 있어서는 구름이 되고 땅에서는 못이 되며 양수라고 한다. 녹은亥에 있고亥는 못과 늪이 되고 고여 있는 水이며 사수(死水)라고 한다. 사수(死水)는 강수(剛水)이고 庚金에 의지하여 생하며, 庚의 녹이 申에 이르면 능히 壬水를 생하니, 곧 오행이 흘러서 기르는 기운이다.

3강 천간과 지지

至於卯地，卯乃花果樹木，木旺於卯，則能剋土，土虛則崩，故堤岸崩頽，而壬水走泄，散漫四野，流而不返，又被陰木盜氣，豈得存活，故壬水生於申而死於卯也，經云，死水橫流，正謂此也。

卯의 지지에 이르면卯는 꽃과 과실의 수목(樹木)이고, 木이卯에서 왕하여 능히 土를 극하니, 土가 허(虛)하면 무너진다. 따라서 제방이 붕괴하여 흘러서 떠내려가고 사방의 들판에 흠어지고 흘러가서 돌아오지 못하며, 또한 음목에게 설기되니, 어찌 생존하겠는가? 그러므로 壬水는 申에서 생하고卯에서 사(死)하는 것이니, 경(經)에 이르길, 사수(死水)는 횡류(橫流)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함이다.

3강 천간과 지지

又曰, 壬水浩蕩, 有源之水, 併百川而漫天下, 藉土為之隄防. 若干支無土, 必至漂流四溢, 身衰多遇火土, 反見耗源塞流之吝, 且壬愛南行, 以未午為胎養之地, 財祿和暖之鄉, 長生歸祿, 莫過申亥, 蓋統宗會元之府, 而水得其所歸故也. 若財多身弱, 值此必能集福, 身旺財輕, 遇此反受其災, 縱強壯少年, 亦不能勝此也.

또 이르길, 壬水는 호탕(浩蕩)하게 흐르고 근원이 있는 水이며, 모든 하천을 아우르고 천하에 가득하여 土가 제방이 되는 것에 의지한다. 만약 간지(干支)에 土가 없으면 반드시 표류하여 사방에 넘치며, 신쇠(身衰)하여 火土를 많이 만나면 도리어 원천을 소모하고 흐름을 막는 인색(吝嗇)함이 나타난다. 또한 壬은 남방으로 행하길 좋아하는데, 이는 未午가 보양(胎養:保養)하는 지지가 되고, 火 재성의 녹이 화난(和暖:따뜻함)한 곳이기 때문이다. 申 장생이 亥 녹으로 돌아가면 申亥가 과중(過重)해서는 안 되는데, 대개 통종(統宗:근본을 통솔:申)과 회원(會元:원기를 회합:亥)이 모여서 水가 돌아갈 곳을 얻었기 때문이다. 만약 재다신약(財多身弱)하여 이것을 만나면 반드시 복이 모일 수 있으나, 신왕하고 재가 약할 경우, 이것을 만나면 도리어 재앙이 되는데, 설령 소년에 강장(強壯)하더라도 또한 이것을 이길 수 없다.

癸

得龍而運

지지에 용(辰)을 얻어 움직이게 되면

功化斯神

그 공로가 화하여 오묘한 신의 조화를 이룬다

不愁火土

화와 토가 많아도 걱정하지 않으며

不論庚辛

경금과 신금 어느 것도 설기한다고 말 못한다.

3강 천간과 지지

癸水，繼壬之後，乃天干一週陰陽之氣，成於終而反於始之漸，故其為水，清濁以分，散諸四方，有潤下助土之功，滋生萬物之德。在天為雨露，在地為泉脈，謂之陰水。

癸水는 壬의 뒤를 계승하니, 곧 天干으로 음양의 기운을 일주(一週)하여 마지막을 이루고 시작하여 차츰 나아감으로 돌이킨다. 따라서 그것이 水가 되고 청탁(淸濁)으로 나뉘어 사방으로 흩어지니, 아래로 흘러서 토를 돕는 공이 있고 만물을 자생(滋生)하는 덕이 있다.

하늘에서는 비와 이슬이 되고, 땅에서는 천맥(泉脈:샘의 수맥)이 되고, 음수(陰水)라고 한다.

3강 천간과 지지

其祿到子，子乃陰極陽生之地，辛生庚死之垣，癸為活水，活水者，柔水也，喜陰金而生，畏陽金而滯. 欲陰木行其根，則能疏通陰土，陰土既通於地脈，則能流暢.

녹은 자에 이르고 자는 음이 지극하여 양이 생기는 지지이며,辛이 생하고 庚이 사(死)하는 월령이다. 癸는 활수(活水)이고 활수(活水)는 유수(柔水)이고, 음금(陰金)이 생해주길 반기며, 양금(陽金)이 막히게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음목(陰木)이 그 뿌리로 나아가서 음토(陰土)와 소통(疏通)하고자 하는데, 음토가 이미 지맥(地脈)에 통하면 흘러서 막힘이 없다.

3강 천간과 지지

二月建卯為花果樹木，木旺土虛，癸水方得通達. 至於申地三陰用事，否卦司權，天地不交，萬物不通. 申中坤土庚金遂成圍堰，使癸水不能流暢，困於池沼，無所施設，豈再生物，故癸水生於卯而死於申，經云，水不西流，正謂此也.

二月의 월령 卯는 꽃과 과실의 수목(樹木)이 되는데, 木이 왕하고 土가 허하여 癸水는 바야흐로 통달할 수 있다. 申의 지지에 이르면 삼음(三陰:天地否)이 용사(用事)하여 비괘(否卦)가 권한을 맡아서하니, 천지가 사귀지 못하고 만물이 통하지 못한다. 申中 곤토(坤土)의 庚金은 마침내 방죽을 이루고, 癸水를 흐르지 못하게 하여 못과 늪이 곤궁해져서 벼풀어 행하지 못하니, 어찌 다시 만물을 생하겠는가? 그러므로 癸水는 卯에서 생하고 申에서 사(死)하니, 경(經)에 이르길, 水는 서방으로 흐르면 안 된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함이다.

3강 천간과 지지

又曰, 癸水雨露陰澤之潤也. 若根通亥子, 則盈科集流, 以成江河, 柱無坎坤, 失其生旺之本, 終為身弱, 局有財官, 雖我所用之物, 不可遇之太過, 如申子辰全, 則水歸聚一家, 暗衝寅午戌火為用, 反為上格.

또 이르길, 癸水는 우로(雨露)와 음택(陰澤)이 적셔주는 것이다. 만약 亥子에 통근하면 물이 구덩이를 채운 뒤에 모여서 흘러 강과 하천을 이룬다. 사주에 감곤(坎坤:子申)이 없으면 생왕의 근본을 상실하여 끝내는 신약하게 되니, 원국에 재관이 있어 내가 소용하는 물건이라도 재관을 태과하게 만나서는 안 된다. 만일 申子辰이 온 전하면 일가(一家)로 돌아와 모인 것이니, 寅午戌 火를 암충(暗衝)하여 쓰면 도리어 최상의 격이 된다.

삼명통회 論十二月支得日干吉凶

-子月

甲乙日得子月爲印綬，喜見官露印，忌坐天財、傷印。歲運喜忌同。
갑을일이 자월을 득하면 인수가 되니 관을 보고 인을 투로함을 기뻐한다.
앞은 자리에서 천간의 재가 인을 상함은 꺼린다. 세운의 희기 또한 같다.

3강 천간과 지지

丙丁日爲官，貴，陰陽和合。喜露財、官、見三合、六合、官印合，須考月令中氣。身旺喜財、官，身弱喜印旺。忌七煞傷官、歲運傷爲福之地，丁得之偏官，兩陰相攻，喜身旺有合制，忌身弱無合露，正官及四柱帶多無制伏，運喜身旺合偏官，忌身弱。

병정일은 관이요 귀함이니 음양이 화합이라. 재관의 투간 및 삼합 육합 관인합을 기뻐하니 모름지기 월령의 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왕이면 재관을 기뻐하고 신약이면 인성을 기뻐한다. 칠살 상관을 꺼리지만 세운에서 상하면 복의 땅이 된다.

정화가 이를 얻으면 편관이니 신왕하고 합제함이 있음을 기뻐한다. 신약한데 합은 없고 정관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와 관이 과다할 때 제복됨이 없음을 꺼린다. 운은 신왕하고 편관을 합하는 것을 좋아하며 신약함을 꺼린다.

3강 천간과 지지

戊己日爲財，喜露財身旺，忌坐刃透比。不遇亥子日生，難爲財運。
喜身旺與財，身弱喜旺，忌劫。

무기일은 재가 되니 재를 투로하고 신왕함을 기뻐하며 양인이 놓이고 비견이 투간한 것을 꺼린다. 해자일에 생함을 얻지 못하면 재운이 되기 어렵다.
운은 신왕함에 재와 함께 함이 기쁘고 신약은 왕함을 좋아하는데 겁재는 꺼린다.

3강 천간과 지지

庚辛日爲長生財，喜坐露財身旺，忌無財身弱。如四柱全無財星，便不是長生財，只是傷官背祿，月令須時帶偏官，庚日丙時巳時，辛日丁時午時便爲有制，吉。次宜日時帶諸不見之形，貴。如年日時三官皆不遇，其命可知。行運身旺喜財，身弱喜旺。通忌比、劫。

경신일은 장재의 재가 된다. 앉은 자리에서 재를 노출하고 신왕함을 기뻐하는데 무재에 신약은 꺼린다. 사주에 제성이 전무할 경우 이는 장생의 재도 아니고 다만 배록한 상관의 월령일 뿐이다. 모름지기 시주에서 편관을 두고 제복함이 있게 되면 길한 것이다. 일시주의 글자가 다른 곳에 없는 것이 마땅하나 귀하다. 행운은 신왕에는 재르 기뻐하며 신약에는 왕함을 기뻐하지만 비겁을 꺼림은 서로 통한다.

3강 천간과 지지

壬癸日，壬爲旺，癸爲建祿，只是身強，奈名利二者卻被月令銷熔盡了，頗宜時帶偏官，貴，如壬日戊巳時，癸日巳午時是也。次宜日時帶諸不見之形，貴。如年月時三宮皆不遇，其命可知，運喜行偏官，忌正官。

임계일은 제왕과 건록이니 오직 신강한 것이다. 명예와 이득이 월령에 당해 멸진해 버렸으니 자못 마땅하고 귀한 것은 시주에 편관을 두는 것이다. 다음으로 마땅함은 일시에 글자를 다시 보지 않는 형태의 귀함이다. 곧 연일시 삼궁이 모두 만나지 않는다면 그 명을 가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운은 편관을 행함이 기쁘고 정관은 꺼린다.